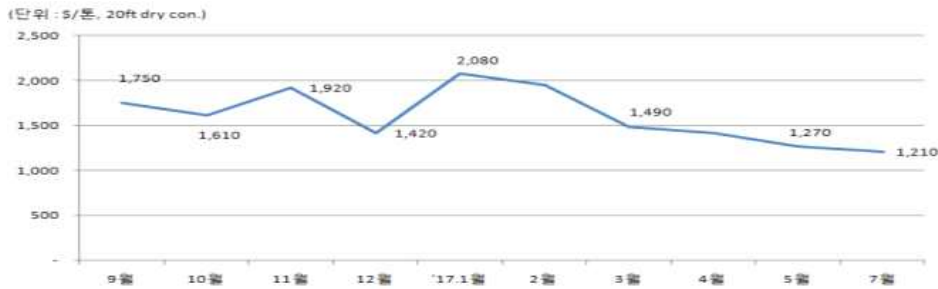


미국-한국간 해상운임 동향

1. 한국발(發) 컨테이너 운송비용 동향

- 계절적 요인으로 한국발 컨테이너 운임은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진해운 사태이후로 떨어졌던 정시성은 회복한 것으로 업계판단
 - 2M, O3, CKYHE, G6 4대 얼라이언스가 2M+H, 디얼라이언스, 오션얼라이언스로 재편되면서 불거졌던 정시성 하락은 다시 회복되고 있음
 - 새로운 스케줄에 맞춰 기존에 운항하고 있는 선박을 새로운 서비스에 투입하는 작업이 단시간에 이뤄지면서, 일시적으로 운항에 차질이 발생했지만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음

〈한국발 컨테이너 해상운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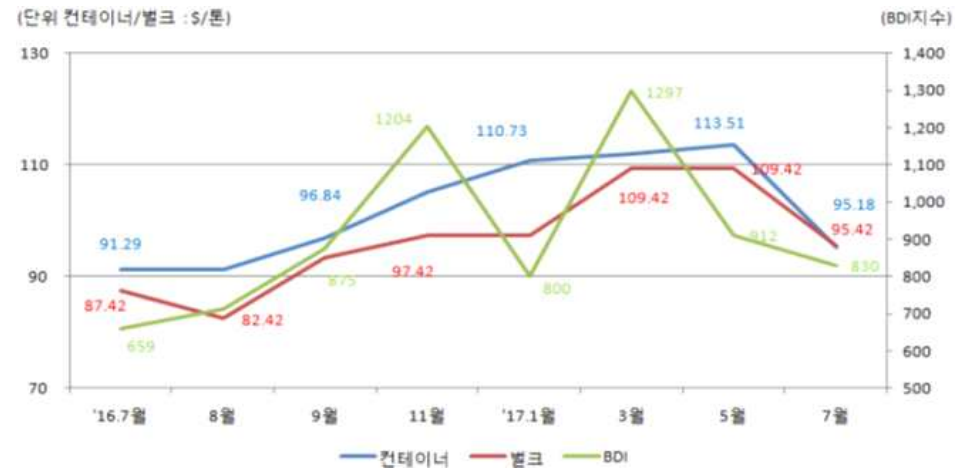
〈선사별-월별 한국발 미서부항만 해상운임〉

한국발 해상운임	10월	11월	12월	'17.1월	2월	3월	4월	5월	7월
Maersk				1,605	1,620	1,430			
MOL		1,920	1,340	2,080	1,950			1,270	1,210
Hyundai			1,420			1,490			
OOCL							1,260	1,180	
NYK							1,420		
UASG	1,610								
SM									1,210

2. 對한국 해상운송비용 동향

- 미국 서안항구(오클랜드, 새크라멘토 항)발 부산항 도착 해상운임은 비수기 등 계절적 요인으로 약보합세 유지 중
 - 비수기의 영향과, 선박의 공급과다 지속으로 컨테이너 및 벌크선 해상운임은 약세 지속
 - 철강석 등 중국수요의 감소로 BDI지수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중국 COSCO 사의 OOCL 인수 합병으로 미국-아시아간 라인의 수는 감소하지만, 기존 운영하는 선박수의 감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컨테이너선 운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업계 전망

〈TRQ 쌀 컨테이너, 벌크 운송비용 비교〉



[시사점]

- 지난해 한진해운발 물류 대란으로 인한 신선품목의 하역지연으로 식품 수출업체가 피해를 보면서 대미 농식품 수출 확대에 악재로 작용함. 최근 한진해운 사태 이후로 떨어졌던 정시성이 회복된 것으로 판단되고 컨테이너 운임도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 대미 농식품 수출 환경이 지난해보다 개선 될 것으로 예측됨